



“하나가 되자”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 선

교리와 성약 38장 27절에는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골로새서 1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4~27절, 로마서 12장 4~13절 등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없이 지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체들이 그 몸을 중심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11절에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 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합이야말로 완전케 이르는 데 필수 조건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도 두면 그대도 있으리라”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이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완전해 질 수 없을 뿐더러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개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회 어느 그룹과 각 개인 사이에 불화, 의심, 적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가 조직된 본래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의롭게 생활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만일 우리가 와드나 지부에서 단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파벌이 생긴다면 이것은 무엇인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시온을 한국 땅에 건설하는 기초가 되는 역군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어느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 고집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협력이나 조화나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각 개인이 서로 자기의 고집만을 관철하려고 싸우는 사회는 일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일그러진 인상을 주어 그 사회는 기형이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구성원이 훌륭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구성원 전부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가 알맞은 위치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회생이 따라야 됩니다. 회생이란 손해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일 것이며, 이런 사람은 능력이 어떠한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망의 80년대에 다시 하나가 되어 보다 차원높은 성숙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